



(주)피피아이 대표 김진봉

## Photonics Special II

# 광주광산업 첨단기술 1호기업 ‘피피아이’ 가보니

전자신문 / 서인주 기자 ( sij@etnews.co.kr )

### “광주연구개발특구 출범 후 첫 지정 국세·지방세 100% 면제 R&D 투자 강화

올 초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 후 첨단기술 1호기업으로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주)피피아이 (대표 김진봉)가 선정됐다.

연구개발특구본부가 인정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된 피피아이는 앞으로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 광주시 조례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피피아이는 매년 세금으로 납부하던 10억여원의 경영자금을 R&D에 집중투자할 수 있어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기술보증기금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신용보증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보증료를 감면할 계획이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피피아이는 평판광도파로(PLC·Planar Lightwave Circuit) 기술을 바탕으로 맥내광가입자(FTTH, Fiber to the home)망의 핵심부품인 광파워분배기와 광파장분배기를 개발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을 비롯해 KT, SKB, LGU+ 등 국내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70% 육박한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광주의 작은 중소기업이 ‘기술력’ 하나로 세계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것. 이 회사는 평판광회로기술을 100% 국내기술로 개발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핵심장비의 국산화와 전 공정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모드변환기 등 16건에 달하는 특허도 이 회사의 자랑거리다.

지난해 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올 상반기에만 101억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200억원대 진입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ROADM기술과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광모듈레이터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피아이는 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가 선정하는 첨단기술기업에 선정됐다.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 보유는 물론 이를 활용해 발생한 매출이 연간 총 매출액의 30%를 넘어야 하며,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해 피피아이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광주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다음날부터 특구지원법과 산업발전법 등을 꼼꼼히 분석했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기반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이용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연구개발특구본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피피아이는 요즘 자신감으로 넘친다. 세제혜택으로 기업운영에 숨통이 트이면서 광분배기, 모드변환기, 프롤그타입 반사필터, 자동 광파장 파워미터 분야의 연구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본부 배정찬 광주기술사업화센터장은 “이번 1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계기로 향후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유망기업들이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지역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봉 사장은 “내수 확대에 따른 제품 수율 및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유럽 등 신규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